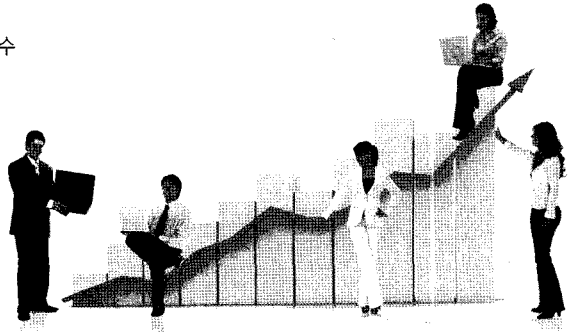


# 취업률 지표 맛보기 \*

서민 원 |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인제대 교수



## 취업률 지표, 향기

최근 한 국가의 취업률이 그 국가의 산업 구조 및 재정의 건실성과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흔히 “OECD 국가 중 취업률 순위가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취업률은 한 국가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 경우 한 국가의 취업률은 단순한 산출식으로 표현하면 “취업가용총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흔히 “대학졸

업자 취업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학이 입학한 학생을 교육하여 졸업시킬 때 취업률 몇 명이 하는가 즉, 가장 단순한 산출식으로 나타내보면 “당해년도 대학졸업자수 대비 당해년도 취업자 수 비율”이 곧 취업률이 된다.

물론 취업률은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산출식으로만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산식과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단순성의 미학을 지닌 취업률은 한 국가 혹은 한 대학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하지만 그것

을 활용하는 데에는 정량적 지표가 가지는 마  
술과도 같은 본질적 한계와 쟁점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 취업률 지표, 소리

취업률의 정량적 지수가 정말로 한 국가  
혹은 한 대학의 경쟁력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지수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취업률 지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는 취업률  
이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때 제  
기될 수 있다. 예컨대, 산출식이 가지는 논리  
가 무엇이나에 따라 취업률의 의미가 달리 해  
석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대학평가와 관련하  
여 취업률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률이 나타내주는 정보의 의  
미와 그것이 지니는 해석상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산출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활용  
되고 있는 산출식이다.

2010년도 대학졸업자취업률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취업대상자

2011년도 대학졸업자취업률 = 0.8×(6월  
·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 + 0.2×유지  
취업률

위 2개년도의 산출식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취업률은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느냐  
에 따라 그것의 산출값과 해석이 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취업률 지표를 각종 대학평가나 재  
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때는 그것이 산출된  
근거와 그 수치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취업률 지표, 색깔

취업률이라고 하는 정량적 지표가 대학  
의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타당한  
가에 대해서는 취업률 지표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현행 대학졸업자취업률은 대학의  
교육적 성과 중에서도 단기적인 결과만 추정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 있다. 대학의 교  
육적 성과는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크  
게 장기적 성과와 중기적 성과 단기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다. 대학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이  
며 일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이  
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정보공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취업률 지표는  
대학교육의 성과 중에서도 단기적 성과만을  
나타내준다.

둘째, 취업률은 단순히 양적 지표이므로

취업의 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은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직장에 만족할 때 취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대학졸업과 동시에 당장 어느 직장이든 취업이 가능하지만,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더 나은 직장 탐색을 위해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취업의 질이란 측면에서 보면 취업률 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임이 분명하다.

셋째, 취업률은 산출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조작 가능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률이란 용어를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산출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취업률이 본래 대학의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주는 타당한 지표인가가 산출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취업률이라고 하는 양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어떻게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취업률 지표는 학문분야에 따라 그 성과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 이공계, 자연계, 예술계 등은 제각기 학문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에 따라 취업의 의미와 대학

교육성과의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 취업률 지표, 모양

이와 같은 취업률 지표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을 강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첫째, 취업률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교육이 학생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대학교육 풍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취업률 지표, 디저트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률이 주는 단순함에 대하여 'Beautiful'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지니는 함의가 너무도 복잡하다. 그래서 아예 내친 김에 이 자리에서 취업률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취업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람 - 이름하여 백수, 고통스런 사람이      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 취업률아, 너는 그 맛  
더 많겠지만 - 이야 말로 가장 가능성과 기회      을 알고 있니?!

## 필자소개

서민원 |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인제대 교수

서민원은 어릴 때 야구선수하다, 좀 더 커서 오페라 가수를 동경했지만 꼬꾸라지다. 자연과학사에 종종 심취했다. 평가가 존재론적 탐구임에 매력을 느껴 고등교육평가로

박사학위 받다.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이며, 대학평가원 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다.